

우리가 하나되던 때

최민화

*최민화님은 민청학련 사건시 연세대에 재학생이었으며,
1975년 석방 후에도 민주화운동에 전념, 민청련 활동으로 수
차에 걸쳐 구속, 투옥되었다. 현재는 열린우리당 오산지구당에
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3선개헌

1969년 3월 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다. 대개가 그러했겠지만 당시 사회경제적 사정이라는 게 대학을 다니기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시골 살림의 형편과 사정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학력 차이가 극심할 때였을 뿐아니라 국공립 대학도 아니고 사립대에 진학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 적만 하더라도 농촌이었던 오산 시골에서 자라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나는 대학을 서울로 유학해야 했다. 이런저런 까닭에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나는 개교 이래 두 번째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니만큼 대학교에 동문 선배나 친구가 있을 터이니 나는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다. 친구와 선배들을 사귀고 교수님들을 가까이 모시면서 학교 생활에 열심이었다. 아름다운 캠퍼스와 화려한 계절의 낭만에 묻히기도 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기도 하던 참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3선개헌 파동'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헌법으로 재선된 지 불과 1년 여가 지났을 뿐 임기도 넉넉하게 남겨 둔 시점이었다.

연초부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는 갑자기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완수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져

야만 한다고 강조해마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4년씩 두 번 그러니까 8년으로 제한되는 중임제 헌법 내용을 위대한 영도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한해서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합리적 이성과 양식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정국은 별집을 쭈서 놓은 듯 뒤숭숭했다. 야당과 재야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지식인들은 박정희 1인을 위한 장기집권 음모요 정권 야욕이라고 비판하며 들고 일어섰다.

그 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의 대학은 물론 일부 고등학교에서까지 3선개헌 음모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터져나왔다.

그러던 그 해 6월 나는 격렬했던 연세대 3선개헌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아직 미성년의 티를 벗지 못한 나이에 수배자가 되어 일정한 거처없이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배회해야만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나는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다.

방학을 맞이하고 한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래도 잠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걱정만은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유전 무전여행도 할 수 있었고, 서울 근교 산과 고향 인근 저수지 등에서 텐트를 치고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각계각층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강연과 집회 시위 등으로 저지 운

동을 적극 전개했다.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삼선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서자 박정권은 8월 9일 개헌안을 정부로 직송하고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의결하여 공고해 버렸다. 그리고는 삼선개헌 반대운동을 저지하고 탄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투표법안을 8월 30일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새 학기가 들어서기 직전 공안기관에서는 시위 주동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수백 여 명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켰다. 그리고 9월 14일 새벽 공화당 의원들만 야음을 틈타 삼삼오오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개헌안을 단독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형국 이었던만큼 가을 학기에 접어들자마자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

나는 지명 수배로 피신하고 있던 중에도 동료 학생들과 계속 모임을 갖고 삼선개헌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는 한편 연세대학교 학생 시위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그리고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경찰 기록으로 남아 있는 바, 수배된 지 3개월 여만인 1969년 9월 21일 나는 오산 고향집에 잠깐 들렀다가 잠복 중이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대에 체포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우중충하고 너저분하기 짝이 없는 보호실에서 무슨 파렴치하거나 흉악한 죄를 짓고 들어온 듯한 사람들 십 여 명과 함께 쌀쌀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내 내 나는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심경에 젖어 있었다.

그 때 30대 쯤으로 보이는 분이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가며 들려 준 이야기 가운데 내가 평생 동안 잊

지 않고 귀감으로 삼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 분의 말인즉슨 자기도 연세대를 나왔고, 학교 다닐 적에 학생운동에도 열심히 가담했는데 졸업 후 누군가와 사업을 함께하다가 동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 오게 되었다면서, 동문 선배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내게 알려 주겠노라고 했다.

나는 그 분이 실제로 연세대를 나온 선배인지 아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 와 있는 건지 아닌지 하는 등등의 내용에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고 있을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심경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간절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는 그 분의 말을 못 들은 체 외면만 하고 있거나 매정하게 거절할 주변머리도 없는 나로서는 그냥저냥 조용히 듣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분은 내게 성공의 비결은 빨리 포기하는 데 있다고 했다. 경제가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아질 때 사업이 잘 안되고 점점 어려워져 갈 때 자기도 일찍 정리하고 포기했다더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망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업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일어서야 한다는 욕심이 결국은 사업을 돌이키기 어려운 지정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만 포기야말로 성공의 아버지라고 했다. 사업에서나 인생에서 집착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내게 강조해 마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이 대목에서 생생하고도 신선한 느낌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그 어떤 지식이나 신념에서보다도 바로 이 대목에서 깨우침과 위안을 얻으면서 나 자신을 지켜 온 바가 적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 분위기에서 고문을 당할 때, 나는 그 때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비굴해지지 않도록, 비굴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감옥에서 사색하고 명상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도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선(禪)의 세계, 무심(無心) 무아(無我)의 경지야말로 바로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세계, 즉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는 훈련에 다름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나는 당시 학생처장 이근식 교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보증으로 군에 입대할 것을 서약하고 불구속 입건 처리로 풀려났다.

운전병으로

1969년 11월 나는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했다. 논산 훈련소에서도 여러 연대 가운데서 가장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다던 30연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는 가평 1군단 운전교육대에서 운전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이가 한 내무반에서 4~5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저런 이유에서였

는지 나는 교육생 구대에서 학생장을 맡게 되었다.

학생장은 함께 교육 받는 교육생들을 자치적으로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같은 동료들을 강요하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다가 기간병인 구대장에게 바쳐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했다. 처음에 한 두 번 시도는 해 보았지만 나는 양심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바치고 나니까 나에게는 매일 무서운 매질이 퍼부어졌다.

그때 어금니가 부러진 것을 나는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하고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학생장으로 있는 구대에서 휴식 시간 중 교육생 한 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대 전체가 발각 뒤집혔다.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인근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탈영한 교육병은 제주도 출신이었다. 그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육지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난생 처음으로 기차라는 것을 실제로 구경하고 훈련소에서 전방 운전교육대로 이송될 때 비로소 직접 타 보았다는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가정 형편과 사정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드넓은 바다와 높게 치솟은 한라산 자락, 평온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섬에서 대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숨쉬고 자랐을 그가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제식훈련을 하고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적응하기도 몹시 힘들었을

것이였다. 더우기 낮설고 물설은 전방에 갇혀서 협박당하고 기합 받아가며 극심한 훈련을 견디어 내기란 그야말로 평화로운 천국에서 생활하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같은 심사였을 것이였다.

그의 탈영 사실을 나는 불과 15분 여만에 확인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CP라고 불리는 부대 본부로 가서 일어난 정황을 자세히 보고했다. 나는 그 당시 상병인 구대장에게 온갖 협박과 강요와 구타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견디기 힘들만큼 주눅들어 있던 참이였다. 그런데 내가 학생장으로 있는 구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고, 이제까지 얼굴도 보지 못한 부대장에게 불러가게까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초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나보다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려 왔다.

야전 잠바 양쪽 어깨와 군모에 대위 계급장을 단 하늘같은 부대장은 지휘봉을 든 채 열중 쉬엣 자세로 꼳꼳하게 서 있었다. 부대장은 내게 탈영 전후의 정황을 보고받고 몇몇 사실을 확인한 다음, 탈영 사건 후 내가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물어 왔다. 그리고는 출신 학교 등 나의 신상에 대한 일까지 이것저것 심문하듯 물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부대장이 묻는 말에 대답했다. 한 동안 침묵이 흐르고 하늘같은 부대장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모든 신경세포가 바짝 긴장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대장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고해서 다행이네.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테니

까 곧 잡을 수 있을거네” 하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어안이 벙벙했다. 부대장은 입술을 내 귀 가까이에 대고 작은 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나도 3년 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네.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었지. 애로사항이 있나? 있으면 뭐든 얘기해 보게.”

그때 나에게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은 학생장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구대장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네.”

탈영병은 부대장의 말대로 3시간 여만에 붙잡혔다. 붙잡힌 탈영병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마치 혼절해버린 사람 같았다. 부대장은 탈영병에게 어떠한 기함이나 구타도 일체 가하지 못하도록 모든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했다. 특별히 나에게도 탈영병이 소위 ‘고문관’으로 따돌림당하지 않도록 한 내무반에서 각별하게 보살피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함께 운전교육 전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부대로 무사히 배속되었다. 나는 학생장의 직분을 다른 교육생에게 물려 줄 수 있었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범칙과 비리도 어느 정도 시정되었다.

교육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 부대로 배속되어 복무 중이던 1971년, 개악된 헌법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난생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나는 감시의 눈길도 아랑곳없이 당당하게 야당 후보에 기표했다.

도대체가 헌법을 자기 권력 야욕의 도구로 일삼는 박정희 후보를 자유로운 형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찍는 사람들의 심사는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

제대와 복학, 그리고 10월유신

1972년 4월 나는 제대하자마자 연세대에 복학했다. 함께 입학한 동기들은 4학년이거나 아직 군 복무중에 있었다.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하고 있던 나는 후배들과 한 반에서 공부해야 하는 처지였던만큼 학업이 뒤쳐지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스러웠다. 그러니만큼 무엇보다도 학업에 열심이었다. 아마 고등학교적 대학입시 준비를 하던 때 만큼이나 긴장하고 열심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내가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도록 놓아 두지 않았다. 뜻한 바대로 마지막 임기 3선에 당선된 박대통령은 취임하고 보니까 4년 임기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던가 보다. 해가 한번 바뀌었을 뿐 임기도 한참을 남겨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예 원없이 영구집권할 요량을 부려댔다.

그 해 10월 17일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10월유신'을 선포했다. 우리 백성이 조선조 말엽이나 일제 시대에 들어 보던 말이다. 한글로 국어를 삼은 이래 해방된 조국에서는 금시 초문이던 말이다. 정확하게는 1867년, 우리나라로는 고종황제 즉위에 일본의 메이지(明治) 천황이 분립된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왕

권을 복고시키고 개혁을 단행해서 새롭게 뜯어고쳤다는 ‘메이지 유신(維新)’을 본받자는 거였다. 일본이 유신을 단행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정복할 수 있었고 만주국을 건설했으며, 나아가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할 수 있었다던 그 100여 년 전 일본의 원대한 정신과 기상을 거울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유신헌법을 공고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평생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골라서 지명하게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도 아무나 나서지 못하게 했다. 대통령은 꼭두각시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선출하게 했다.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물졌지만, 모든 국민은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방송이나 언론은 물론 타인에게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적극 찬성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전만이 방송이나 언론, 공공기관, 단체를 통해 온통 난무하게 했다.

10월유신을 찬성하지 않으면 사상이 의심스럽고 불순분자이고, 복귀를 이롭게 하는 반국가적이고 빨갱이고 그랬다. ‘10월유신’ 비상계엄령 치하에서 온 나라 백성은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힌 채 주눅들어 있었다.

그 때 민주주의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표현되는 그 숨막히던 절망과 공포 속에서 나는 남은 대학생들과 나의 전체 운명이 순탄치 않은 곡절을 겪게 되라라고 예감했다.

외국으로 떠나버리기라도 했으면 했다. 그것도 최소한 동의

하지 않는 침묵적 저항일 것 같았다.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양심을 지켜야 했다. 두려움을 떨쳐야 했다. 다가오는 운명의 곡절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함석헌 선생을 찾아 뵙고 고민을 말씀드렸다. 함선생님은 정신적 지성과 양심적 행동을 겸비하신 상징이셨다. 마음 속으로 늘 존경해 마지않던 터였다.

함석헌 선생

내가 함석헌 선생님의 함자를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5학년 경인듯 싶다.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면 언제부터인가 싸전마당 한복판에 높은 연단이 세워지고 전봇대마다 확성기가 매달려졌다. “이승만 박사...” 운운, “이기봉 선생...” 운운하던 소리가 장꾼들의 흥정을 방해하면서 귀청을 울리고 있던 적이었다. 지낼만 한 이웃 어른들 중에는 자유당이라고 적힌 완장을 팔뚝에 걸치고 장꾼들을 불러 모으는 이도 있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1960년 3월 13일 오산 장날, 나는 희한한 행렬 꼬트머리를 토래들과 더불어 신명나게 따라다녔다. 낮익은 동네 형들이 앞장을 서서 검은 교복으로 우글거리는 학생들을 이끌고 있었다. “부정선거...”, “공명선거...” 등 상기된 모습으로 구호를 외치며 장바닥을 휩쓸고 다녔다. 장꾼들도 행렬 가장자리에서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더러는 손뼉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선생인지 면사무소 직원인지 순사인지 싶은 어른들이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 학생들을 붙잡아 끌어내고 하였다. 한참을 그러더니 행렬은 점점 흩어져 갔다. 동네 어른들 중에는 “제 애비는 자유당 완장차고 유세하고 다니는데, 자식놈들이 제 애비보다 백번 낫구먼” 하며 대견해 마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었던 오산중고등학교 학생 가두시위는 마산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더우기 3월 15일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거사로 4·19 혁명사는 기록하고 있다.

저녁 나절 파장될 무렵쯤 되자 리어가 위에서 양쪽으로 확성기를 단 나무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서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조병옥 박사...” “장면 박사...” 운운하며 잔뜩 상기된 모습으로 유세하고 다녔다.

이런 분위기 적을 전후로 경기도 오산 시골 구석 씨알에게까지 퍼져 오가던 함석헌 선생의 담대한 필력에 관한 이야기들과 사설만큼씩한 분량으로 신문지상에 여러 날 연재되면서 글머리 밑에 씌어진 ‘함석헌’이라는 친필 함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지나지 않던 나의 머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함선생님을 직접 뵈기로는 연세대에 입학하고서다. 연세대 기독교학생회에서 함 선생님을 연사로 모신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장에 들어 선 나는 길고 하얀 수염에 한복을 단정하게 차리고서 연단 위에 곱상히 서 계신 함선생님의 모습이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좀 일찍 오게 돼서... 이 학교 교정을 한번 둘러 보았소. 참 크고 훌륭해. 좋은 교정이요. 아름다운 꽃도 많고 나무들

도 좋고, 한참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봤어.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왜들 그 모양이야!”

청중들이 모여들면서부터 자리를 마련한 학생들은 한창 부산하게 움직거리며 애를 태우게 된다. 한 5분에서 10분 가량을 여유로 남기고 맞추하하게 도착해서 종을 함선생님은 그 날 강연 시간보다 무려 1시간 가량을 미리 도착하셨다는 것이다. 강연장에 둘러 보니 청중은 고사하고 준비하는 학생도 하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정을 이리저리 둘러 보았다.

그런데 제 나라가 어찌 되어 가는 판국인지도 모르고 배우는 학생들 머리 속에 ‘생각’이란 게 도무지 없다는 것이다. 젊은이는 쉬 늙어 버릴 사람이고 배움은 이루기가 힘든 것이어서 한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데, 봄날 날씨 좋다고 교정에 앉아 정신 못 차리고 단꿈만 꾸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저 망하고 나라 망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려고 이러는 게요. 도적질한 죄수한테서나 받아 두는 지문을 착한 백성들한테 뿔하러 몽땅 찍어 둘러고 그러는 게야!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정치라는 건 본래 더러운 것이라 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라는 것이다. 주민증을 바꾸는 속셈도 필경 도둑의 심보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훌륭했을 법한 가문에서 남달리 귀하게 자라신 교수님들, 살기 좋은 외국에서 많은 학문을 쌓고 돌아오신 교수님들, 제 나라에서는 내놓고 자랑해도 뒤질데 없이 존경받을 체면에도 불구하고

고 앞에 나서거나 크게 주장하는 법 없는 교수님들, 조용한 목소리, 겸손한 표정으로 선진국 이론이나 엮어 전수하는 점잖고 으젓한 교수님들... 이들에 대한 인격적 감상에 젖어 있던 나는 그럴 법한 부류의 상징이어서 마땅할 함선생님의 첫 모습에서 적지 아니 혼돈을 갖게 되었다.

고작해서 한 발자국도 안 되는 탁상과 칠판 사이에 끼어 한두 시간이라야 손가락으로 세기에 족할만큼 개념적인 어원만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 외에 탁상 위에 펼쳐 있는 노트를 보기 위해서 손에 쥔 안경이 눈가로 잠깐 옮겨지는 습관을 제하고 나면 거의 구두 밑굽만 떴다 놓는 정도로 마감되는 조심스런 자태가 전혀 아니었다.

이런저런 이론들을 엮어서 역사적인 맥락을 깔끔하게 꿰어내고 반론을 한다거나 재해석하는 따위로 논리정연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는 도대체가 음성이 조용한 것도 아니었다.

간디 사상연구 모임

처음의 만남이 이렇듯 심상치 않은 인연이었던가? 나는 유신 계엄이 선포되고 대학은 휴교를 하고, 전국은 절망과 공포로 주눅들면서 쥐죽은 듯 고요하던 때에 함석헌 선생님이라면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도 더 치떨리는 심정으로 몸서리를 치고 계실 것만 같았다.

함선생님은 우리 일행을 펍 자상하게 맞아 주셨다. 뜻밖에도 신촌 봉원동 산거에 조용히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선

해 주셨다.

연세대에서 뜻을 같이 할 학생들을 찾았다.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신학대 학생들도 찾았다. 이렇게 ‘간디사상연구모임’을 만들었다.

봉원산거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모이는 차례로 조용히 가부좌를 하고 턱을 15도 쭈 위로 치킨다.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에 잠긴다. 한 소리를 만나 귀속에 담고 명동(鳴動) 깊숙히 파묻히기도 하고 한 생각을 만나 머리에 이고 돌이킬 수 없는 미로(迷路)에 빠지기도 한다. 열추 모였다 싶으면 적당한 헛기침 소리에 맞춰 자리를 가다듬는다. 간디 자서전(Gandhi's Autobiography :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을 펴서 차례지어 돌려 읽고 뜻을 푼다.

옛적부터 오랜 세월 이 땅의 교육제도가 바로 이러했을 것이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모이는 차례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턱을 15도 쭈 아래로 떨구고 있을 것이었고, 스승은 표정을 삭이고 비스듬히 앉아 장죽대를 빨면서 모여드는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었다.

고금에서 동서에 이르는 함선생님의 말씀이 한 주일 동안에 생긴 일들과 어우러지고 간디의 삶과 이어져서 가이없이 펼쳐진다. 수줍은 미소와 겸양어린 표정으로 들릴듯 말듯 더듬으며 시작해서 차츰차츰 미소가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진다.

더듬던 ‘말씀’이 서둘러지고 또렷해진다. 안색이 변하고 눈에는 핏발이 선다. 손이 오르내리고 몸이 움직인다. 혈색이 벌겍게 물들어지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그리고는 온몸을 치흔들어

분노하며 외친다. 내키는 대로, 내키는 그대로를 ‘말씀’으로 쏟아 놓는다.

다시 수줍고 겸양어린 모습으로 되돌아 고금에서 동서에 이르는 역겹 올에서 한 가닥 두 가닥 섬세한 솜씨로 뽑아 내어 이리저리 휘젓다가 어느새 둘러 앉은 젊은이들은 올마디를 좇아 겨를없이 해맨다. 휘저이면서 이리저리 떠돈다. 한참을 지나서야 동(東)으로, 또 한참을 지나서야 (西)로, 옛날로, 제 자리로 염주처럼 꿰어진다.

이런 모양으로 한 해 남짓을 어울려 공부하다가 이듬해 소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우리는 대부분 구속되거나 지명수배를 당했다. 그후 1975년에 다시 모임을 갖고 인도 경전 『바가반 기타(Bhagavadgita)』를 공부하면서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 나갔다.

당시 모임을 갖고 함께 어울려 공부한 이들로는 남학생으로 강경현(태학관 관장), 강용현(판사), 김우성(경희대 교수), 김형기(경주 중앙교회 목사), 박경수(한국공항관리공단), 박재순(씨알사 상연구회 회장), 부길만(동원대 교수), 신대균(사회운동), 이도성(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이원희(목사), 임지순(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임유식(사업), 조성완(재미 목사) 등과 여학생으로 김은희(전 조선일보 문화부), 김인성(성공회대 교수), 유영림(목사),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있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한편으로 나는 ‘한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 사회정의의 실현을 강령으로 내세운 기독교 학생회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에든 각 대학마다 총학생회가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크게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경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신체제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감시와 탄압이 극심해짐에 따라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고도의 자기 희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진실을 외치기가 매우 힘든 시대였다.

학생운동은 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몇몇 대학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모임이 학생운동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연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각 대학마다 전통과 맥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학생 서클의 지도부들끼리 간헐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서클에 비해 상대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 연합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가 바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이었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은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조직된 YMCA와 YWCA, 그리고 KSCM이라는 기독교 학생 단체를 모두 통합하여 1968년

연맹체로 구성된 대표적 기독교학생 단체이다. 당시 전국에 걸쳐 어지간한 대학에는 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학생회의 연합 조직인 것이다.

KSCF는 전국을 서울·중부, 영남, 호남의 3개 지구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도와 강원도를 포함하는 서울·중부지구의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신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개월여 만인 1973년 봄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으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임원 5명이 보안사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2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박형규, 권호경 목사 등 4명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해 10월 2일에는 서울 문리대 학생들이 풍문으로만 나돌던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과,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것 등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2시간 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출동한 경찰이 학원에 난입하여 시위 학생 180여 명을 강제 연행해서 그 중 20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즉심에 회부하여 구류 25일에 처했다.

서울대 10·2 데모를 주동한 강영원, 나병식, 정문화, 황인성 등은 KSCF의 학사단 운동 출신 임원들이었고, 이들 이외에도 대부분의 서울대 소속 KSCF 회원들이 구속되거나 구류 처분 또는 지명 수배를 당했다.

유신 초기 공포와 절망으로 주눅든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이 땅의 비판적 지식인 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참여 운동은 서로 연대하고 결합할 필

요를 더욱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 10·2 데모 사건은 유신 계엄령 이후 침묵하고 있던 당시의 전국 대학생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를 시발로 해서 구속 학생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다.

나는 연세대 학생시위와 철야농성을 이끌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학생들과의 모임도 계속했다. 구속 학생에 대한 석방운동이 전국의 대학으로 번지고 정국이 어수선하게 돌아가자 유신 정권은 모든 대학에 휴업할 것을 명하고, 이어서 대학은 휴업과 함께 조기 방학으로 들어갔다.

한편 유신체제 이후 서울 문리대에서 처음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전국의 대학이 데모로 소용돌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신문과 방송에서 전혀 사실대로 보도를 못하자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자유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보도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박 정권은 구속된 학생들을 모두 석방하고 지명수배 조치도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10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혹독한 심문과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오기도 했다. 이 즈음에 이화여대 동아리 회장을 맡아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던 박혜숙을 만났다.

재야에서는 장준하·백기완 선생 중심으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30여 명이 개헌청원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유신권력은 느닷없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내세워 유신체제에



▲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시위

대한 도전을 일체 불허한다면서 이듬해 3, 4월 불순불온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국가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니만큼 전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서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KSCF에서는 광주에서 전국 모임을 갖고 박정권의 독재와 독점 경제를 규탄하는 한편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기독교생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처럼 대학이 방학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정국 분위기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는 정보기관에 요시찰자로 분류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1974년에 들어서자마자 문인 60여 명이 개헌지지 문인 성명을 발표하였고, 신년 하례 인사 등을 통해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도 급속도로 퍼져갔다.

1974년 1월 8일 박정권은 유신헌법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개정을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긴 자는 군법회의를 통해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 장준하, 백기완 선생을 전격 구속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군법회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 사흘 후에는 긴급조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함께 구국기도회를 가진 이해학, 김진홍, 김경락, 인명진, 이규상, 박윤수 전도사 등을 전격 구속하고 역시 같은 절차로 징역 15년과 12년씩을 선고했다.

다시 일주일 뒤에는 대학이 휴업과 조기 방학으로 이어지면서 수업 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임시 개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개강 첫날 유신 반대 시위를 벌이자 의대생 김영선, 이근후, 김구상 등을 전격 구속하고 같은 절차로 각각 징역 7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그 닷새 후에는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같은 사정으로 개강하는 첫날 유신 반대 집회를 벌이자 본과 1년생 고영하, 황규천, 이

상철, 문병수, 김석경, 김향, 서준규 등 7명을 전격 구속하고 각각 징역 7년에서 3년까지 선고했다.

이렇듯 유신정권은 전쟁 상황에서라야 취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대통령 긴급조치를 민주인사와 종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동해서 마구잡이로 휘둘러댔다.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열망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열기를 더해 갔다. 2월에는 구속된 분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국 교회에 발송한 혐의로 권호경(목사), 김동완(목사)과 이대 의과대학 본과에 재학중이던 김매자, 그리고 이미경(전 국회의원), 차옥송(교수), 김용상(목사), 박주환(목사), 박상희(목사) 등 8명이 구속되고 같은 절차로 각각 징역 15년에서 3년까지 선고받았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들어서자 대학은 대통령 긴급조치 1호의 발동에도 아랑곳없어 했다. 한신대와 경북대, 서강대 등에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는 사건이 터져 나왔다.

기관에서는 4월 3일을 기해 일제히 서울 시내에서 가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말 경부터 요시찰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해 연행하기 시작했다.

1974년 4월 3일, 박정권은 학생 시위 주동자와 그 배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

립하기 위해 일제히 쫓기하려 했다면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선포 내용은 학생의 출석·수업·시험의 거부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머리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움직임, 그런 모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5년 이상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온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아니니 참으로 천인공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연행되어 고문당했다. 조직적인 기반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에서는 26명이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간디사상연구모임 회원 역시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 특히 함께 공부했던 김은희, 김인성, 정진성 등 여학생들도 봉원산거 퀘이커 모임집에서 등사기를 몰래 가져다가 민청학련 선언문을 필경하고 등사해서, 운반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고, 봉원산거 또한 살살히 수색당하는 난리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장준하 선생 등 재야 정치 지도자와 박형규 목사와 가톨릭의 지학순 주교 등 성직자, 연세대 김찬국, 김동길 교수와 김지하 시인 등을 포함해서 종교인과 지식인, 청년 학생들이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연행되어 불법으로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과 서빙고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무려 2~3개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조작 수사로 치를 떨어야 했다. 그리고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이라는 죄목으로 한 두름에 엮어졌다.

나는 3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대에 검거되어 곧바로 중앙정보부 수사국으로 이첩되었다. 그 당시 이화여대에서 가장 활동적인 학생 서클을 이끌고 있던 약학대 3학년 박혜숙이 나보다 먼저 검거되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간 박혜숙은 모진 협박과 공포 분위기에 빠져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추궁에 견디다 못한 나머지 “최민화로부터였다”고 진술했다. 나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서부 지역과 인천 지역 대학의 학생 지도부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혜숙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댈 상황이었다. 그녀가 나보다 먼저 검거되고 나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지시한 사실이 절대로 없노라고 계속 부인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하던 나는 계속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스승이나 여학생은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박혜숙으로부터 내게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나는 이 엄혹한 상황에서 여학생과 어떻게 ‘국사’를 의논하겠느냐면서 박혜숙뿐만 아니라 여학생과는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당시 6국장으로 가장 악명을 떨치던 이용

택이 직접 내 취조실에 나타나 고문을 지시하고 나갔다. 지하 고문실로 끌려간 나는 걸쳐 입었던 옷을 모두 벗기우고 수갑을 찬 다음 팔 무릎을 하고 그 사이에 철봉을 끼워 공중에 매다는 이른바 통닭구이 물고문에 들어갔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실 어머니께 ‘엄마’하고 매달리고도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된 도리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잊지 못할 한을 안겨드리고 먼저 죽어가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죄송스러움이 떠올라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저로 하여금 협박과 공포, 모진 고문 앞에서 육체적 고통으로 떨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저들에게 빌거나 애원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제 영혼을 편안히 거두어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옵소서.’

야수 앞에 무릎 꿇고

물고문을 당하기 위해 수건을 얼굴에 씌우는 순간, 나는 형장에 끌려가 용수를 머리에 씌우고 밧줄을 목에 감는 사형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빨리 포기하여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물을 붓기 시작하자 나는 물을 마구 들이켜댔다. 숨이 막히고 목이 막혀 헉헉대면서 나는 죽기로 작정한 듯 마구 삼켜댔던 것이다.

“이 새끼, 아주 독종이네. 사실대로 볼 거야 안 볼거야? 너 같은 놈 돼진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임마!”

“어, 이 새끼 보게. 돼지기로 걱정했구먼. 돼져라, 돼져. 이 새끼 옷 가져다 휴전선 철조망에 걸어놔, 목메어 보고 싶던 아버지 수령 김일성이 만나러 철조망 넘어가다 들켜서 총알 맞아 돼진 걸로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임마!”

“너, 솔직하게 다 털어놔. 너 언제 평양 갔다 왔어? 너 평양 가서 누구 만났어! 김일성이 언제 만나고 왔어? 다 털어놔야 살지, 너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 임마!”

“야, 정상복(현재 감리교회 목사)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냐? 정상복이 지금 평양 김일성이 한테 갔어, 임마! 너 정상복이 한테 무슨 지령 받았어? 너한테 지령한 사람이 누구야! 너 안 대면 되져 임마!”

“야! 이 빨갱이 새끼야. 평양에 언제 갔다 왔는지 말 안해? 너 상부선이 누구야? 누구난 말야, 임마!”

나는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래, 잘 있어라. 늑대와 사자라도 네 놈들보다는 낫겠다. 야수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고 빈속에 아량을 바라겠냐. 나 먼저 그냥 간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멀리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 열 살 때쯤 오산천을 오리쭈머 거슬러 올라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애방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여자애들의 지껄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오는 그림에서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얼굴을 내밀고 보니까 우리 반 여자애들이 발가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다. 되돌아 와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는 다시 살금살금 다가가 나무꾼과 선녀에서처럼 여자애들이 벗어놓은 옷을 몰래 집어 들고 달아나 모래 속에 파묻어 숨겨 놓는다.

장면이 바뀌면서 그 중의 한 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여자애가 나만큼 나이 먹은 아줌마가 되어 큰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순간 나는 큰 도둑질을 하다 들켜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덜컥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갑자기 물벼락이 쏟아지더니 모든 장면이 멈추고 아스라하게 정신이 들어오면서 컴컴한 지하 고문실, 축축한 물바닥, 널려 버려진 물수건, 철봉대 등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 온다.

‘아,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나쁜 장난치다가 들켜서 가슴이 덜컥했어도 그때 거기가 좋았는데...’

나는 순간 몸서리를 쳤다. 정신이 들고 나기를 그렇게 몇 번 더 반복하고 나서 나는 다시 취조실로 끌려갔다. 담당 수사관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박혜숙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했다. 박혜숙은 이미 다 불었었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부인만 하니 자기만 뒷사람에게 혼이 난다는 거였다. 박혜숙을 당장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그쯤 되어서야 나는 ‘아! 정말로 박혜숙이 진술을 했나 보구나’ 하고 깨닫고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여기까지 온 마당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내가 지시했다고 진술할게요”

나는 다섯 살이나 어린 후배인 박혜숙과 대면하게 되면 혜숙은 여학생의 몸으로 이런 공포 분위기도 감당하기 힘들텐데, 거기다가 내 앞에서 배신자가 된 기분으로 더욱 비참한 분위기에 빠져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혜숙이 안쓰러웠다.

이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면서 절대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서로 다짐을 했지만, 기왕에 상대방이 진술을 한 것이고, 어차피 사실인 바에야 대질 신문까지 해 가며 그녀 마음에 상처를 안겨 주기가 싫었다.

나는 그 후로 박혜숙과 결혼하여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일을 이처럼 자세하게 말하거나 고백하지 못했다. 그러잖아도 나에 대한 부담이 있을텐데...

기껏해야 출소한 후 만났을 때 농담으로 내 죄명은 긴급조치 1호 뿐인데 내가 혜숙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숨긴 죄로 긴급조치 4호와 내란예비음모죄까지 덮어쓰게 됐다고 우스갯 소리로 언급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로 나에게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박혜숙은 이화여대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구속되었고, 김옥길 총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4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무지막지한 선고 형량

구속된 이들은 2심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족들에게 면회는커녕 어디에 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3월에 잡혀간 내가 7월 말까지 소식이 없으니 오산에 계신 부모님으로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실 게 당연했다.

구속된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서울구치소는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4개월 여 동안 서울시내 각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두 방 건너 1명씩 분산 배치했는데, 나는 12사동 상층 절도범 방으로 배정됐다. 한 방에 있는 절도범들은 모두 면회가 되는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나만 면회가 불허되었다. 나는 한방에 있는 사람 중 아내가 매일 면회를 오는 이에게 부탁을 했다.

“내 누이가 오산기독병원 간호부장으로 있는데, 당신 부인께 우리 누이를 병원으로 찾아가서 내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는 기별을 전해 주고 읽을 책과 영치금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해 달라.”

그런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여인네가 누이를 찾아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갔는데,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 것이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변론을 하던 강신옥 변호사마저 구속해 버릴 정도로 박 정권의 탄압은 무자비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7월 13일에 재판을 받은 53명에게는 사형 14명, 무기징역 15명, 징역 20년 18명, 징역 15년 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급조된 군법회의 법정에서 구속된 이들 가운데 204명이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1심에서 15년,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해서 발단이 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과 함께 전국민적인 반정부 저항 운동으로 번져나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말미암은 유신 체제 권력의 무지막지한 횡포와 탄압의 잔학성이 전세계로 번져 국제 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 권력에 의해 비인도적이거나 비열한 처우, 잔인한 처벌로 침해당할 때 인류세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내야 했다.

반인권적 국가 권력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진상조사와 항의 방문 등이 잇따랐다. 급기야는 전세계적인 정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전대미문의 법으로 권력을 휘둘러서 민주화 운동을 막으려던 박 정권은 국내외의 비난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다. 이 와중에 8월 15일에는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박정권은 2심 형량을 낮췄고,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여만인 1975년 2월 15일 관련자 대부분인 148명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 아닌 민청학련 관련자

4명과 배후세력으로 몰린 여정남, 도예종 등 인혁당 관계자 21명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인혁당 관계자 가운데 사형을 언도받은 8명에게는 1975년 4월 9일 새벽 전격적으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박정권이 8명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던 1975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언론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국제 사회는 이 날을 '사법살인의 날'로 선포했다.

석방, 그리고 계속되는 수난

연세대에서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학생 17명과 교수 두 분이 구속되었다가 모두 석방되었다.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 등 여러 모임에서는 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이듯 우리들의 석방을 환영하는 행사를 잇따라 갖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모아주었다. 종교·사회단체들에서도 석방 인사 환영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그야말로 온 장안이 술렁거릴 정도였다.

반면에 유신 통치권력은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지면서 당황해 했다. 석방된 이들을 향해 반성하고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중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때 연세대 박대선 총장은 유신 권력의 기선을 피해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듯 서둘러서 우리들의 복학을 허락했다. 다른 대학에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살기등등한 유신 권력이 가만 있을 리 없었다.

문교부가 나서서 계고장을 보내고 연세대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정국은 더욱 술렁거렸다. 하지만 결국은 연세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강제 사퇴하고 교수 직분까지 박탈당하는 참담한 굴욕으로 끝나버렸다. 우리는 온전히 복학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연세대 교정은 온통 울분에 차서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교수님들도 모두 그랬고 재학생과 석방된 우리도 그랬다.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대학원장으로 계셨던 성내운 교수님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자네들과 함께 감옥도 가고 같이 쫓겨났어야 하는 건데…” 라며 계속 학교에 나와 공부하라 하셨다.

우리는 복학 처리된 학생 신분으로 등교를 시도했다. 정보기관원들은 새벽부터 교문과 강의실 앞에 지켜서서 우리의 수업을 방해했다. 온종일 지켜서서 우리가 나타나면 강제로 연행해 갔다. 경찰서 보호실에 가두기도 하고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 쯤에 풀어주기도 했다.

이런 곤경을 당하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곁에서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 교직원 모두 누구랄 것 없이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었다. 아니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담당 기관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악법이라도 좋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삼고 기준을 정해서 절차를 밟아 연행하든 가두든 해야 할 게 아니냐면서 집요하게 등교를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는 우리 모두가 장기 결석으로 학점도 못받고 제적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수긍

할 수도 없었다. 일단 끝난 일로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없었다.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양심으로 저항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선 함께 석방된 김동길 교수를 모시고 관계기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교과 과정을 공부했다. 우리는 이 강좌 모임을 민립(民立)대학이라 불렀다.

연행 여행과 미인제 사건

때로 외국 국가원수나 국제적인 인권 단체에서 방한하게 되면, 우리는 아예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 먼 곳으로 연행되어 잠적해 있어야 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오를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국가 경축 행사에 참석할 때도 그랬다.

1975년 3월 26일 나는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있던 중에 기관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미국 의회의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의 고문과 조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다. 또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대표단을 보내왔다.

그들이 만날 만한 30~40명의 명단이 중앙정보부에 입수되자, 그들은 명단에 든 인사들이 조사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강제 연행하여 지방으로 보내게 했다.

이른바 ‘연행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수법은 박정희가 사망하는 1979년까지 이어졌다. 나는 당시 화성군 오산읍에서 살고 있

었기 때문에 수원 지역 정보기관에서 나를 담당하여 연행 여행을 다녔다.

틈을 타서 잠시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는 봉원산거를 찾았다. 여남은 이들과 인도 경전 『바가반기타』를 공부하고 있던 선생은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여자 조심해야 될 거야” 하고 염려해 주셨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튿날 수원에서 온양으로, 수덕사로, 장항으로, 군산으로, 전주로 정신없이 끌려 다녔다. 자정을 넘어서야 전주 북관쪽으로 여겨지는 곳에 위치한 여관에 들어서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피곤도 겹치고 해서 선잠에 빠져들 즈음 잠결에 등어리 바깥으로 뭉클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 왔다. 이상한 감촉에 잠을 설치고 깨어 돌아보니 동행한 기관원은 간 데 없고 스물두어 살 쯤으로 보이는 웬 여자가 완전히 벌거벗은채 나와 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순간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치면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려고 벽을 더듬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왜 이러느냐고 조용히 한번 놀라고 하면서 내 팬티를 잡고 늘어졌다. 나는 털썩 주저 앉아 팬티를 다시 가려 입고 주인장을 부르며 마구 소리를 질러 댔다.

그러기를 두 세 번 계속하자 그녀는 조용히 하면 불을 켜 주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불을 켜고는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 와 내 목을 잡고 끌어 당겼다. 2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틈을 타서 밖으로 뛰쳐 나왔다.

내친 김에 서울로 올라와 명동에 위치한 전진상 교육관 위층

의 수녀원으로 가서 수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있었다. 그러자 지학순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오시고, 박형규 목사님과 이철, 김지하의 어머니 등이 찾아 오셨다.

마침 한국의 인권 문제를 취재하러 왔던 영국의 BBC 방송 텔레비전 제작팀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했다.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세 분이 공동의장으로 이끌던 민주회복국민회의에서는 대변인 함세웅 신부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광고 탄압 사건으로 박정권과 한창 심각하게 마찰을 빚고 있던 동아일보에서는 ‘강제 연행 학생 미인계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함 신부의 기자회견문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

BBC에서는 순수한 학생을 강제로 연행해서 인간적으로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려는 반인륜적 행위로 미인계 사건을 소개하면서 유럽과 북미주에 텔레비전으로 생생하게 방송했다.

그 주간에 있었던 목요기도회에서 함석헌 선생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어떻게 맑고 순진한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해다가 창기를 집어 넣어 타락시키려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요!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 지경인데도 우리가 비폭력만 하고 있어야 되겠소? 갑시다! 도끼 들고 나갑시다. 치안본부로 가서 다 때려 부수어야지...” 하며 울분을 이기지 못해 하셨다.

마하트마 간디도 누군가가 아버지를 폭력으로 살해하려 한다면 아들이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그 괴한에게 비폭력으로 대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괴한의 폭력으로 아비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는 폭력으로 맞대응해서라도 괴한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대답했다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함선생님

은 나가야 된다고, 도끼라도 들고 여관으로 치안본부로 몰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비폭력주의자인 함석헌 선생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적 저항을 언급하신 대목이다.

그 주간 일요일 나는 새문안교회 주일 예배와 대학생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잠복 중이던 수원경찰서 정보과 형사에게 검거되었다. 그리고는 부산으로, 포항으로, 경주로 다시 연행 여행을 떠났다.

경주에 머물고 있을 때 인혁당 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날 경주는 새벽부터 먹구름이 끼고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참으로 을씨년스런 날씨였다. 빈 속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먹지 않던 막걸리를 한 사발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이내 위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토해 버렸다.

연행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늦게 수원에 도착하자 서울농대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김상진 열사가 자결한 일로 경찰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런 저런 일로 수원경찰서장 이하 정보과장, 계장, 담당자들 모두가 사표를 쓰게 되었다. 기관장과 간부들이 모두 오산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부모님은 내 처분만 바라보고 계셨다.

그들은 “우리도 월급 받아 살아가는 공무원인데, 여기서 옷을 벗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생활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와 용서로 도와 주십시오” 하며 어머니

께 인간적으로 간곡히 호소했다.

나는 중앙정보부 본청 간부를 만나 “나는 박정희 권력과 유신체제의 잘못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단 기관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분들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책임을 말단 지역 기관장과 담당자만 져야 합니까? 난 용납 못하겠소. 이 사람들만 다치게 하고 옷을 벗게 하면 나는 이 문제로 끝까지 싸울 작정이요. 하지만 윗분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사과하고 말단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내가 양해하고 참겠소”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은 무사했고 기관장만 시말서를 썼는데, 그후 다른 사건과 겹쳐 그 기관장은 직위해제됐다. 이 일로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더 하게 된 그 담당자는 오산중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지금도 서로 인간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인계 사건은 1975년 초봄 서울지역 대학가에 널리 퍼져 나갔다. 한번은 이화여대 학생운동 지도부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한 여학생 간부가 실실 웃으면서 내게 야릇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도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느냐는 거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면서 요즈음 이화여대 캠퍼스에 무슨 소문이 나도는지 아느냐고 한다. 그 다음 시리즈가 있는데 한번 알아 맞춰 보란다.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허허 웃으며 무안한 분위기를 때우려 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내가 잘 모르겠다고 궁여지책으로 대답하자 한 여학생이 나서서 이대에 소문이 파다한데 무슨 소문이나 하면,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라면 ‘최민화는 고자다!’ 라는 거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떠나갈 듯 소리지르며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나는 웃으면서도 얼굴이 빨개져서 홍당무처럼 되어버렸다. 요즈음 같으면 여학생들이 남학생 하나를 놓고 오히려 집단적으로 성희롱을 가하는 꼴이라 아니할 수도 없다. 나는 이 난처한 위기를 어떻게 넘기나 궁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정 구절 한 대목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웃음소리가 조용하게 잦아들면서 나는 표정을 조금 엄숙하게 가다듬고는 대답했다.

“의심나는 여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